

도시·지역학 전공 대졸자들의 취업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The Realitie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University Graduates' Getting Employments Who Majored in Urban and Regional Studies

송 명 규**

Song, Myung Gyu

目 次

I. 서론	2. 취업 만족도와 전공과의 관계
II. 선행연구 동향	3. 현재 일자리 구직 시 각종 항목들의
III. 자료와 분석 방법	중요성과 자격 요건
1. 자료	4. 대학 및 전공 선택에서의 문제점
2. 모집단과 표본	5. 대학 재학 중 취업 관련 프로그램
3. 자료의 가공과 분석 방법	V. 결론
IV. 실증분석	<abstract>
1. 취업 실태	<참고문헌>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university graduates' getting employments who majored in urban and regional studies and to propose some improvement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applies mainly cross tabulation analysis, ANOVA, and some descriptive analyses and employs supplementarily t-tests.

(3) RESEARCH FINDINGS

The facts found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ly, the university graduates who majored in urban and regional studies seem to be placed in unstable and

* 이 연구는 201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행정학박사, mksong@dankook.ac.kr

▷ 접수일(2015년 10월 12일), 수정일(1차: 2015년 11월 19일, 2차: 2015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18일)

insecure job states relative to other graduates. Secondly, they tend to be dissatisfied with both their present jobs and university major. Finally, they turn out to have pass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job programs of their universities.

2. RESULTS

Universities should make constant efforts to select those applicants who have sufficient aptitudes and firm convictions for urban and regional studies in the beginning and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diverse job programs during the period of their attendance at university.

3. KEY WORDS

• university graduates, urban and regional studies, Real Estate, getting employment, job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학을 포함한 도시·지역학 전공 대졸자들의 취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몇몇 기본적인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을 주로 활용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시·지역학 대졸자들은 여타 대졸자들에 비해 취업 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며 둘째, 현 직장과의 대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셋째,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대학은 애초에 도시·지역학에 대한 소신과 적성이 있는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입학 후에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핵심어 : 대졸자, 도시·지역학, 부동산학, 취업, 직장

I. 서론

청년실업의 해소는 작금의 한국 사회가 처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신규채용 및 창업

지원 확장, 임금 피크제¹⁾,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성적인 청년실업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에 비해 신규 청년 노동공급자가 더 많은 초과공급 사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보도자료), 2015. 9. 15, pp.1-15.

형에서 초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수요 측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긴요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배출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수급 양면의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 특히 정규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교육 수준이나 자질에 걸맞지 않은 하급 직종에 취업(즉 하향취업)하게 되거나 원하는 수준의 취업을 위해 오랜 기간 실업자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학을 포함하는 도시·지역학 전공 최근 대졸자²⁾들의 취업 현황과 취업의 질적 수준, 직장 만족도, 직장내 전공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지역학 전공 대졸자들의 취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 동기, 정규 교과과정, 비교과 취업 프로그램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도시·지역학 대졸자들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정책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이론의 제시나 가설 검증 등을 통한 학술적 측면보다는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라는 실용적 측면에 주안점이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 9월에 실시한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³⁾>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이하 2012 GOMS로 약칭)이며 연구 방법은 집단 간 평균비교, 독립표본 t검정, ANOVA 그리고 교차분석 등이다.

II. 선행연구 동향

도시·지역학은 경제학이나 사회학, 혹은 정

치학 같은 여타 사회과학에 비해 역사가 일천하다. 그러나 다방면에 걸친 학제간 연구가 긴요한 융합 학문이라는 점과 순수 이론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제와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 학문이라는 점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학술적 지평과 탐구 방법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도시·지역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수, 대학 내 관련 학과나 전공 수, 재학생 및 졸업생 수, 전문 학술지와 논문 수 등의 팽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학의 하위 학문인 부동산학을 예로 들면, 대표적 학술지 중 하나인 「부동산학보」의 경우 1977년에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의 약 70%가 최근 10년간의 것일 뿐만 아니라⁴⁾ 탐구 주제와 방법도 훨씬 다양하다.

각각의 개별 학문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연구경향을 추적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시사점 풍부한 과제인데, 특히 도시·지역학 관련 전공 대졸자들의 취업 현황을 분석하는 본 연구처럼 매우 특수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와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학보」에 게재된 총 717편 논문들의 주제별 연구경향을 고찰한 김유경·정부균·최민섭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중 약 절반이 부동산 정책 및 법제도, 부동산 개발, 부동산시장 및 시장분석에 치중되어 왔고 부동산학의 교육 내용이나 발전 방향 등을 다룬 총론 분야는 4.3%에 불과했다. 게다가 총론에 속하는 논문은 시대가 흐를수록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977년부터 1992년까지는 전체의 10.1%에 달했으나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7.8%,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2.5%에 불과했고⁵⁾ 그나마도 부동산학 분야 졸업자들의 취업 실태에 초점을 둔 것은 거의 없었다. 한편 부동산학 분야의 또 다른 대표적 학술지인 「부동

2) 현재 부동산 관련 학과(학부 포함)는 29개 대학, 도시계획, 도시계획/부동산, 도시/부동산, 도시및지역개발, 지역개발 등 도시 관련 학과는 16개 대학(도시행정 포함), 도시공학 및 유사학과는 32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3) 이 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5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설명회, 2015, pp.22-35를 참조 바람.

4) 창간호 이후 지금까지의 논문 1,142편 가운데 지난 10년간(2006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것이 총 797편에 달한다(www.reacademy.org/school paper).

산학연구」의 동향도 「부동산학보」와 대동소이 했는데, 한 예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학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오동훈·이용만·이재순의 연구를 보면 총 430편 가운데 총론은 5편(전체의 약 0.9%)에 불과했다.⁶⁾

2011년 이후의 「부동산학보」도 대동소이 하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학보」에 출간된 논문은 모두 398편인데, 이 중 부동산 산업 현장이나 종사자, 대학 교과과정 등을 다룬 논문은 공인중개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및 이직 의도와와의 관계를 밝힌 김화순·정재호의 연구⁷⁾, 중개서비스에 있어서 고객만족과 서비스성과를 위한 결과품질, 과정품질, 환경품질 간의 차이점과 영향 요인을 규명한 김영철·김갑열의 연구⁸⁾,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5개 업종으로 구분한 다음, 각 업체의 인사 및 교육 담당자에게 부동산학 교육과정 수요를 설문조사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부동산학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윤동건의 연구⁹⁾, 직무분석법을 활용하여 부동산 분야 산학협력 맞춤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한 김재환의 연구¹⁰⁾, 부동산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와 역할을 다룬 Lee, Lee, and Kang의 연구¹¹⁾, 공인중개사의 이미지와 고객확보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배장오·진서현의 연구¹²⁾ 등 모두 10편 남짓에 불과하다. 또한 본 연구처럼 부동산 관련 대졸자들의 취업 실태를 다룬 논문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부동산학의 인접 학문인 도시계획학이나 도시행정학도 사정이 비슷하다. 우선 도시행정학의 경우는, 우리나라 도시행정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찾으려 한 김태영의 연구¹³⁾, 그리고 도시계획학의 경우는 도시계획 영역의 일자리 실태와 확대 방안을 모색한 최현욱·이상경¹⁴⁾의 연구가 몇 안 되는 예의 하나이다. 그러나 도시계획학에서든 도시행정학에서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제시나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본 연구처럼 대졸 전공자들의 취업 실태와 현황 분석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다.

대졸자들의 취업 실태와 현황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희소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장 자료의 부족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한국 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가 매년 대형 표본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원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 여건,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는데, 특히 대졸자의 취업 성과 결정요인, 최근의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초과공급으로 인한 하향취업 경향,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성, 취업 소요기간과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들은 아직까지 전공을 불문하고 대졸자들을 하나의 동일 입단으로 묶어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을 포함하는 도시·지역학 전공자들의 취업 실태와 문제점을 여타 전공 대졸자와 비교분석하려는 본 연구는 모든 학문 영

5) 김유경·정부균·최민섭, “부동산학의 연구 경향 분석: 「부동산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7집, p.147의 <표 8>과 <표 9>.

6) 오동훈·이용만·이재순, “「부동산학연구」 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2014”,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5, 제21집 제2호, p.115의 <표 7>.

7) 김화순·정재호, “공인중개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와의 관계”,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pp.18-32.

8) 김영철·김갑열, “거래목적에 따른 부동산중개 서비스성과의 결정요인”,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pp.5-17.

9) 윤동건, “사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부동산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소고”,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6집, pp.161-177.

10) 김재환, “직무분석을 통한 부동산 교육과정 개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pp.231-245.

11) Lee, K. Y., C. S. Lee, and J. W. Kang, “Corporate Ethics of Real Estate Service Business and Social Role”,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pp.278-291.

12) 배장오·진서현, “공인중개사의 이미지와 고객확보와의 관계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4집, pp.315-327.

13) 김태영, “한국 도시행정학 교육과정 분석: 도시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함의”,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제26집 제4호, pp.103-121.

14) 최현욱·이상경, “도시계획 분야 일자리 실태 및 업역 확대 방안”,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통권 385호, pp.3-26.

역을 통틀어 지금까지 별로 시도된 적이 없는 매우 희소한 연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Ⅲ. 자료와 분석 방법

1. 자 료

2012GOMS는 대졸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 간에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개별 학교 및 전공별 세부 노동시장 성과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제공하여 대학과 전공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시작되었다.¹⁵⁾ 2015년 현재, 총 8회가 실시되었으며 조사가 완료되어 일반에 공개된 것은 본 연구가 사용하는 2013년 9월 조사가 가장 최신의 것이다.¹⁶⁾

이 조사는 전국의 전문대학, 교육대학, 그리고 일반대학 졸업자의 3~4%를 선정하여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이동, 소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해 졸업 후 약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되는데, 이 중 2012GOMS는 경제활동상황, 현직장 일자리, 첫직장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취업 준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향후 진로, 인적사항 등 총 10개 영역에 걸쳐 1,1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형 횡단면 설문조사로서, 질문은 근무 중인 직장의 종사자 규모, 근무시간, 소득 등 몇몇 문항을 빼면 대부분 폐쇄형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1,130문항 가운데 연구의 목적과 초점에 부합하는 41문항을 사용하였다. 41문항은 ① 인적사항 중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2개), ② 현직장 일자리 중 취업 상태와 관련된 문항(6개), ③ 현직장 일자리 중 취업 만족도 및 전공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7개), ④ 현직장 일자리 중 구직 시 각종 취업 관련 항목들의 중요성 및 자격 요건과 관련된 문항(10개), ⑤ 학교생활 중 대학 및 전공 선택과 관련된 문항(4개), ⑥ 학교생활 중 재학 시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항(12개)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2. 모집단과 표본

2012GOMS의 모집단은 2011년 8월과 2012년 2월에 전문대 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조사대상 학교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으로, 산업대학과 학점은 행제 등 각종학교,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되는데, 2012년 2월 기준 해당 졸업자는 총 502,915명(모집단)이다. 표본 추출 방법은 주로 학과단위를 기준으로 한 할당추출인데, 할당의 기본원칙은 학과단위별 표본크기가 최소 30명 이상이 되도록 배정하는 것이다.¹⁷⁾ 이렇게 추출한 최종 표본의 크기는 18,077명이다.¹⁸⁾

본 연구는 4년제 일반 대학 가운데 특수 전공 계열이라 할 수 예체능과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들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인 된 실제 표본크기는 총 10,457명이다. 이들은 서울권 소재 대학 졸업자 26.3%, 경인권 19.4%, 여타 지역권 54.3%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56.5%로 여성보다 약간 많다.

본 연구는 리코딩 작업을 거쳐 분석대상 전공 계열을 인문계열(N=1,734), 사회계열(도시·지역학 전공 제외, N=2,896), 교육계열(N= 836), 공학계열(도시공학 제외, N= 3,081), 자연계열(N=1,820), 도시·지역학

15) 한국고용정보원,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4, p.1.

16) 실제 조사는 9월에서 11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질문지는 9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5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설명회, 2015, p.23).

17) 도시·지역학 전공의 표본크기는 32인데, 이는 할당추출의 최소 규모인 30명을 2명 상회하는 수치로서, 전국 대학에서 도시·지역학이 매우 희소한 전공 중 하나라는 것을 뜻한다.

18) 한국고용정보원,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4, pp.5-7.

전공¹⁹⁾(N= 32), 도시공학(N=58) 등 모두 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²⁰⁾ 이 중 도시·지역학 전공은 본 연구의 초점이며 도시공학 전공은 도시·지역학 전공과 연계성이 높은 공학계열 전공이므로 비교집단의 하나로 별도 분류하였다.²¹⁾

3. 자료의 가공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석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응답 범주가 리커트 5점 척도로 된 문항은 <표 1>과 같이 3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리커트 척도가 아닌 문항은 개방형 비율척도이거나 다중 택1형 명목척도인데, 그런 문항은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비율척도는 집단(전공 계열) 간 평균비교와 독립표본 t검정 및 ANOVA를 통해 분석하

였고 리커트 척도나 명목척도는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ANOVA의 F값과 모든 교차분석의 χ^2 값은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과 표에서 F값, χ^2 값, 자유도, 유의확률 등의 표기와 설명은 모두 생략했다.

IV. 실증분석

1. 취업 실태

<표 2>는 7개 전공 계열의 2013년 8월말 현재 근로 여부 비율을 제시한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도시·지역학 전공은 응답자의 전체 평균

<표 1> 리커트 척도의 리코딩

1점, 2점 → 1점	3점 → 2점	4점, 5점 → 3점
전혀(매우) 혹은 거의(약간) 불만족 → 불만족	보통(중립) → 보통	매우 혹은 다소 만족 → 만족
전혀 혹은 거의 안 맞음 → 안 맞음	상동	매우 혹은 다소 맞음 → 맞음
전혀 혹은 거의 도움 안 됨 → 도움 안 됨	상동	매우 혹은 다소 도움 됨 → 도움 됨
전혀 혹은 거의 중요 안 함 → 중요 안 함	상동	매우 혹은 다소 중요함 → 중요함
전혀 혹은 거의 요구되지 않음 → 요구 안 됨	상동	매우 혹은 다소 요구됨 → 요구됨

<표 2> 현재 근로 여부(2013년 8월 25일~8월 31일)

(단위: %)

응답 범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도시·지역학전공	도시공학전공	전체
근로	65.9	72.7	61.1	72.6	61.0	78.0	56.9	68.5
비근로	34.1	27.3	38.9	27.4	39.0	22.0	43.1	3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괄호 내의 수치는 표준편차.

19)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GOMS를 활용하고 있는데, GOMS의 학과 분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의 모든 전공을 크게 몇 개의 계열로 분류하고 있는데, 도시·지역학은 사회계열에 속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전공 분류도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와 동일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 분류 체계는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2013, pp.279~477에 수록되어 있다.

20) 계열과 전공은 분류상의 위계가 다르다. 즉, 계열은 다수 전공을 포함하는 유개념(類概念)이며 전공은 계열의 하부 단위인 종개념(種概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도시·지역학'이라는 전공을 이 전공을 제외한 사회계열 전체 및 여타 계열 등과 비교하려는 이유는 졸업생의 취업 실태에서 사회계열의 하나인 도시·지역학이 사회계열 일반과, 또한 사회계열 일반이 여타 계열 일반과 어떻게 다른지를 총괄적으로 파악해보으로써 도시·지역학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연구의 목적이 전공 간의 비교에 있다면 동일 위계의 종개념이 분석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 도시공학 전공은 비록 공학계열로 분류되나 넓은 의미에서 도시·지역학과 함께 도시학의 분과학문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계열의 도시계획 전공과 교과과정(예를 들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등)이나 관련 자격증(예를 들면 도시계획기사)이 중첩되므로 별도의 비교집단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68.5%보다 약 10%가 더 많은 78.0%가 근로중이라고 대답하여 7개 전공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고 도시공학 전공은 56.9%만이 근로중이라고 대답하여 제일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학 전공자들은 모든 계열 중에서 취업의 질적 수준과 안정성이 가장 낮아 하향 취업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우선 현재 근로의 아르바이트 여부를 묻는 <표 3>을 보면, 도시·지역학 전공은 7개 전공 계열 중에서 가장 많은 12.0%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도시공학 전공은 아르바이트라는 응답이 전무했다. 또 현 직장의 규모와 근로 여건을 묻는 <표 4>를 보면, 도시·지역학 전공은 주당 초과근로 시간을 제외하면²²⁾ 7개 전공 계열 중에서 종사자 수로 본 현 직장의 규모²³⁾와 체감 월평균 소득 등의 측면에서 여타 전공 계열에 비

해 매우 불리한 취업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체감 월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 210.03만원에 비해 약 32만원이 낮으며, 사회계열 전체에 비해서는 약 51만원, 도시공학 전공에 비해서는 약 36만원, 공학계열에 비해서는 약 64만원이나 낮다. 체감 월평균소득의 도시·지역학 전공과 사회계열 간, 도시공학 전공 간, 그리고 공학계열 간의 격차는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²⁴⁾

2. 취업 만족도와 전공과의 관계

<표 5>는 현재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를 몇몇 항목별로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도시·지역학 전공은 임금 또는 소득, 개인의 발전 가능성, 주된 업무, 전반적 사항 전체에 걸쳐서 여타

<표 3> 현재 하는 일의 아르바이트 여부

(단위: %)

응답 범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도시·지역학전공	도시공학전공	전체
그렇다	8.7	4.9	7.8	4.4	7.5	12.0	0.0	6.0
아니다	91.3	95.1	92.2	95.6	92.5	88.0	100.0	9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현 직장의 규모와 근로 여건

전공계열	현 직장의 종사자 수(인)	주당 초과근로 시간(시간)	체감 월평균 소득(만원)
인문계열 평균(N=1217)	5.68(2.842)	3.23(5.424)	186.81(90.721)
사회계열 평균(N=2184)	6.08(2.784)	4.04(6.010)	218.76(120.110)
교육계열 평균(N=540)	4.72(2.223)	2.85(5.229)	184.96(72.801)
공학계열 평균(N=2383)	6.28(2.805)	5.04(6.747)	231.65(107.641)
자연계열 평균(N=1231)	5.76(2.965)	3.99(6.483)	187.69(92.071)
도시·지역학 전공 평균(N=25)	4.48(2.400)	4.04(5.898)	167.84(57.300)
도시공학전공 평균(N=34)	5.56(2.873)	4.82(6.557)	204.09(83.829)
전체 평균(N=7614)	5.92(2.823)	4.13(6.232)	210.03(106.056)

* 괄호 내의 수치는 표준편차.

22) 그러나 도시·지역학 전공은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인문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월평균 소득은 20만원 가량 낮으며 사회계열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50만원 가량 낮다. 공학계열 및 도시공학 전공과 비교할 경우에도 주당 초과근로 시간은 조금 적지만 체감 월평균 소득은 매우 낮다.

23) 구직자들은 대체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기업일수록 보수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장래성, 고용 안정성(예를 들면, 대기업일수록 경기변동으로 인한 위기 대처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24) (도시·지역학 전공 평균 - 각 전공 계열 평균)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임.

(단위: %)

[illegible]

전공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낮은 만족도는 임금 또는 소득보다는 주된 업무, 전반적 사항, 개인의 발전 가능성 등의 항목 순으로 더 뚜렷한데, 특히 주된 업무와 전반적 사항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불만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① 현재 취업 중인 직장의 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라는 점, ② 체감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다는 점, ③ 임시직 상태인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④ 주당 초과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표 4〉 참조 바람)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일자리가 전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표 6〉은 그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6〉은 현재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선 현재 일자리와 전공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서 도시·지역학 전공은 전체 28.4%보다 약 12%가 많은 40%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답함에 비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은 불과 각각 28.8%, 14.6%, 23.2%만이 같은 응답을 보이고 있음이 눈에 띈다. 다만 도시공학 전공도 도시·지역학 전공처럼 41.2%가 현재 일자리가 전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답함이 특기할 만하다. 반면 전공과 맞는다는 응답은 도시·지역학 전공의 경우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한편, 전공 지식의 업무 수행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공과의 부합 여부를 묻는 질문과 유사한 응답 패턴이 나타났다.

(단위: %)

[illegible]

〈표 7〉 현 직장 근무 경험으로 볼 때 대재 시 배웠으면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었을 능력 (단위: %)

응답 범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도시·지역학전공	도시공학전공	전체
모름/무응답	0.7	0.5	0.4	0.5	0.6	0.0	0.0	0.5
의사소통능력	23.8	22.1	26.1	15.6	17.1	24.0	8.8	19.8
수리통계능력	5.8	7.4	4.4	5.4	8.6	4.0	8.8	6.5
문제해결능력	15.0	15.3	15.2	14.3	14.0	20.0	17.6	14.7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11.4	11.2	12.0	11.8	13.6	20.0	8.8	11.9
자원활용능력	2.6	3.1	5.0	3.0	2.8	0.0	5.9	3.1
대인관계능력	10.1	12.4	12.4	8.6	12.2	12.0	14.7	10.8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13.6	12.7	10.4	11.3	12.4	4.0	20.6	12.2
기술이해 및 활용 능력	9.4	8.8	7.9	23.4	12.5	12.0	8.8	14.0
조직이해	4.6	4.4	3.9	3.9	4.2	0.0	5.9	4.2
국제감각	2.5	1.6	1.5	2.0	1.6	4.0	0.0	1.9
기타	0.3	0.3	0.9	0.3	0.4	0.0	0.0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을 보면 도시·지역학 전공은 무려 44%가 전공 지식이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공학 전공의 38.3%보다도 5.8%가 높은 수치이다. 전공 지식이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현재의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는데, 도시·지역학 전공과 대조적으로 교육계열 전공은 절대다수가 현재 일자리가 전공과 부합하며(전체의 68.9%) 전공 지식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전체의 71.5%)고 대답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은 한마디로 도시·지역학 전공이 현재의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는 자연스레 ‘현재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대학 재학 시 배웠으면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표 7〉은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 패턴을 보여준다. 〈표 7〉에 나타난 응답 경향은 전체적으로 보아 전공 계열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시·지역학 전공은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을 강조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덜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대학 교과과정에서 도시·지역학 전공은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함양 영역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으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영역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음을 암시한다.

3. 현재 일자리 구직 시 각종 항목들의 중요성과 자격 요건

〈표 8〉은 현재 일자리를 얻는데 학력(학위), 출신대학(학벌), 인적 네트워크(인맥), 인성(성격), 외모, 전공 등 각종 항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표 8〉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항목에서 도시·지역학 전공은 여타 전공 계열 졸업자에 비해 그런 항목들이 현재 일자리를 얻는데 중요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견 학력, 출신대학, 인적 네트워크, 인성, 외모, 전공 등 취업 전선에서 그간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온 각종 요소들이 도시·지역학 관련 직종에서는 그리 중요시되지 않는다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도시·지역학 졸업자들의 현재 일자리가 그런 요소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하급의 직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지역학 졸업자들이 여타 전공 계열 졸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소규모의 직장에서 일하며, 체감 월평균수입이 가장 낮고, 직장 만족도도 가장 낮으며, 임시직 비율은 가장 높고, 뒤의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이직 희망자 비율도 가장 높다

(단위: %)

질문과 응답 범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도시·지역학 전공	도시공학전공	전체
학력 (학위)	중요 안함	33.1	37.8	19.5	34.3	30.0	50.0	25.9	33.1
	보통	37.1	37.6	45.2	43.0	37.6	28.1	32.8	39.7
	중요함	29.8	24.6	35.3	22.7	32.4	21.9	41.4	27.2
출신대학 (학벌)	중요 안함	42.6	48.9	34.2	45.7	41.0	56.3	31.0	44.3
	보통	27.6	26.5	30.5	31.7	26.6	21.9	27.6	28.5
	중요함	29.8	24.6	35.3	22.7	32.4	21.9	41.4	27.2
인적 네트워크 (인맥)	중요 안함	46.9	51.9	47.0	54.7	45.4	56.3	36.2	50.3
	보통	23.2	23.5	17.7	22.7	22.2	21.9	22.4	22.5
	중요함	29.8	24.6	35.3	22.7	32.4	21.9	41.4	27.2
인성 (성격)	중요 안함	23.4	24.6	19.7	28.0	25.1	34.4	19.0	25.1
	보통	46.8	50.9	45.0	49.3	42.6	43.8	39.7	47.7
	중요함	29.8	24.6	35.3	22.7	32.4	21.9	41.4	27.2
외모	중요 안함	50.1	53.6	50.8	60.9	49.7	62.5	46.6	54.3
	보통	20.1	21.8	13.9	16.5	18.0	15.6	12.1	18.6
	중요함	29.8	24.6	35.3	22.7	32.4	21.9	41.4	27.2
전공	중요 안함	39.2	42.0	18.4	28.0	30.1	43.8	27.6	33.4
	보통	31.0	33.5	46.3	49.3	37.6	34.4	31.0	39.5
	중요함	29.8	24.6	35.3	22.7	32.4	21.9	41.4	27.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illegible]

(단위: %)

[illegible]

(단위: %)

[illegible]

(단위: %)

[illegible]

는 사실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 <표 8>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재 일자리 취업에서 전공의 중요성이 도시·지역학 전공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인데, 이 또한 도시·지역학 전공이 타 전공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도시·지역학 전공이 여타 전공에 비해 하향취업 경향이 많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한편 <표 9>부터 <표 11>은 구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들로 생각되어온 외국어 능력과 자격증에 관한 분석이다. 우선 <표 9>는 현재 일자리에서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묻은 것인데, 도시·지역학 전공은 전체 43.8%보다 15.8%가 적은 28%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전체 38.6%보다 5.4%가 많은 44%가 요구된다고 대답하고 있어 대략적으로 볼 때 전체 전공 계열 가운데 외국어 능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학 전공은 교육계열을 제외하면(교육계열 취업에는 교사자격증이 요구된다) 업무상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즉, 도시·지역학 전공은 교육계열 전공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어 능력과 취업 관련 자격증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상 요구되는 자격증을 가장 적게

소지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학 전공의 취업 준비가 여타 전공 계열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4. 대학 및 전공 선택에서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지역학 전공은 여타 전공에 비해 현 직장 만족도도 낮고 적응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근본 배경 중 하나는 이들의 대학 과정과도 관계가 깊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도시·지역학 졸업자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과 관련된 주요 문항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선 <표 13>은 졸업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도시·지역학 전공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62.5%가 '수능 및 학교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전체 39.5%와 교육계열 21.4%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반면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라는 대답은 28.1%에 불과하여 전체 37.4%와 교육계열 56.2%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학 전공이 여타 전공 계열, 특히 교육계열 전공에 비해 대학 진학에서 소위 '소신 지원'보다는 '눈치 지원'²⁵⁾이 많았음

<표 13> 졸업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유

(단위: %)

질문과 응답 범주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도시·지 역학전공	도시공 학전공	전체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	40.1	43.2	21.4	40.2	39.5	62.5	44.8	39.5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 를 공부할 수 있어서	40.0	33.5	56.2	34.5	38.2	28.1	29.3	37.4
	기타	18.9	21.3	19.8	21.8	20.3	9.4	25.9	20.7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1.0	2.0	2.6	3.5	2.0	0.0	0.0	2.3
졸업한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	10.8	25.8	18.0	29.1	16.8	25.0	19.0	22.1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춰서	18.8	17.7	13.1	17.7	22.7	25.0	24.1	18.5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61.4	44.6	54.9	43.8	50.9	28.1	41.4	49.0
	기타	9.0	11.9	14.1	9.3	9.6	21.9	15.5	1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 '원하는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과 '수능 및 학교 성적에 맞춰서'라는 응답을 비교할 경우, 전자는 소신 지원으로, 후자는 눈치 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4〉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학과를 선택하겠는지 여부

(단위: %)

응답 범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도시·지역학전공	도시공학전공	전체
그렇다	49.1	50.7	58.7	51.2	45.1	43.8	25.9	50.1
아니다	50.9	49.3	41.3	48.8	54.9	56.3	74.1	4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5〉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응답 범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도시·지역학 전공	도시공학 전공	전체
적성에 맞지 않아서	16.2	23.4	20.0	28.4	24.7	50.0	11.6	23.7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42.2	27.1	37.1	14.7	29.0	16.7	46.5	27.2
취업후 임금이 타전공 졸업생에 비해 낮아서	4.4	7.6	3.2	5.7	9.9	0.0	4.7	6.6
관련 직업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	13.8	11.8	11.3	16.4	10.5	16.7	14.0	13.2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2.6	3.6	4.6	5.4	4.0	0.0	4.7	4.1
관심분야가 바뀌어서	19.8	25.8	23.2	28.4	21.4	16.7	18.6	24.5
기타	0.9	0.8	0.6	0.9	0.4	0.0	0.0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을 뜻한다.

이런 경향은 졸업한 대학의 전공 선택 이유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도시·지역학 전공의 경우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라는 응답은 전체의 49%와 인문 및 교육계열의 61.4% 및 54.9%보다 훨씬 낮은 21.9%에 불과한 반면 ‘수능 및 학교 성적에 맞춰서’라는 응답은 전체의 18.5%와 교육계열의 13.1%보다 훨씬 높은 25%에 달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신이 결여된 대학 및 전공 선택은 대학과 전공 만족도 및 적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은 〈표 14〉의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학과를 선택하겠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패턴에 여실히 드러난다. 표에서 보듯이 도시·지역학 전공은 56.3%가 동일 전공학과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모든 전공 계열 중에서 전공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5〉는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인데, 도시·지역학 전공은 전체 23.7%와 도시공학 전공 11.6%보다 각각 26.3%와 38.4%가 많은 50%의 응답자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매우 특기할 만하다. 이는 도시·지역학 졸업자들 중 상당수가 적성 상의 이유에서 전공에 잘 적응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도시공학 전공 46.5%와 인문계열 전공 42.2%보다 훨씬 낮은 16.7%에 불과하여 도시·지역학 전공이 타 전공에 비해 졸업 시 취업에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5. 대학 재학 중 취업 관련 프로그램

〈표 16〉과 〈표 17〉은 대학 재학 중 취업 프로그램 관련 사항의 응답 패턴을 보여준다. 우선 〈표 16〉은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묻은 것으로서, 도시·지역학 전공은 여타 전공 계열 졸업자들에 비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 걸쳐서 참여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열 졸업자들은 교육 혹은 교사라고 하는 별도의 전문직으로 진출하게 되므로 〈표 16〉과 〈표 17〉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도시·

취업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전공 계열 졸업자들은 참여해 본 비율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지만 참여 경험이 있는 졸업자들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그것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에서 제공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이 실제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문제는 도시·지역학 전공에게서 더욱 두드러짐을 뜻한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학 전공은 7개 전공 가운데 취업률은 제일 높으나 취업의 질적 수준과 안정성이 가장 낮아 하향취업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지역학 전공은 임금 또는 소득, 개인의 발전 가능성, 주된 업무, 전반적 사항 전체에 걸쳐서 여타 전공 계열보다 직장 만족도가 낮다. 셋째,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했으리라 생각되는 각종 항목들에 대해 도시·지역학 졸업자들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이들의 현재 일자리가 그런 요소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하급의 직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도시·지역학 졸업자의 이직 희망 비율이 가장 높고 현재 일자리 취업에서 전공 중요성이 가장 낮았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넷째, 도시·지역학 전공은 취업 관련 자격증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적게 소지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학 전공의 취업 준비가 여타 전공 계열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섯째, 도시·지역학 졸업자는 여타 전공 계열에 비해 대학 진학과 학과 선택에서 소위 '소신 지원'보다는 '눈치 지원'이 많았던 경향이 있다. 이는 도

시·지역학 졸업자는 모든 전공 계열 중에서 전공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사실과도 관계된다. 여섯째, 도시·지역학 전공은 여타 전공 계열에 비해 각종 취업 프로그램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일곱째, 모든 전공 계열 졸업자들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각종 취업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취업 프로그램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도시·지역학 졸업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상의 사실들은 도시·지역학 전공 교육과정의 개선에서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학생 선발 과정에서 보다 소신 있고 적성이 맞는 지원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는 재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학업 충실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졸업 후 이들의 하향취업을 막고 취업률과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주춧돌이다. 둘째, 도시·지역학 관련 직종은 영어와 자격증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재학 시 어학 실력 향상과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셋째,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같은 취업 프로그램은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되므로 재학시 이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취업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도 제고가 더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사항은 표본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학 전공 졸업자들의 취업 실태를 사회과학계열을 포함한 여타 계열 및 도시공학 전공 졸업자들과 비교하는 것인데, 도시공학 전공 졸업자들을 제외하면 비교집단의 표본 크기는 충분히 크나 연구집단인 도시·지역학 전공 졸업자들의 표본크기는 매우 작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2012GOMS 자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로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어쨌든 표본크기가 작음으로 인해서 본 연구는 방법상 t-검정이나 교차분석 등 이변량분석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변환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검정력 감소로 인해 동일한 평균 혹은 비율 차이에 대해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경우가 증가했다. 표본크기를 증대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매년

GOMS가 조사될 때 연구자가 동일 기간에 동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특정 년도의 특정 전공 졸업자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GOMS와 통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향후 도시·지역학 졸업자의 취업 실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크기가 충분하면 중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같은 다변량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參考文獻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보도자료), 2015. 9. 15.
- 김영철 · 김갑열, “거래목적에 따른 부동산중개 서비스성과의 결정요인”,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 김유경 · 정부균 · 최민섭, “부동산학의 연구 경향 분석: 부동산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7집.
- 김재환, “직무분석을 통한 부동산 교육과정 개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 김태영, “한국 도시행정학 교육과정 분석: 도시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함의”,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제26집 제4호.
- 김화순 · 정재호, “공인중개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 배장오 · 진서현, “공인중개사의 이미지와 고객확보와의 관계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4집.
- 오동훈 · 이용만 · 이재순, “부동산학연구 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2014”,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5, 제21집 제2호.
- 윤동건, “사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부동산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소고”,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6집.
- 최현옥 · 이상경, “도시계획 분야 일자리 실태 및 업역 확대 방안”, 도시정보,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통권 385호.
- 한국고용정보원, 201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4.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5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설명회, 2015.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2013.
- Lee, K. Y., C. S. Lee, and J. W. Kang, “Corporate Ethics of Real Estate Service Business and Social Role”,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 한국부동산학회: www.reacademy.org.